

지역 건설업 회생 길 없다

⑤ 도전정신 아쉽다

광주국세청, 장성 대곡마을 농촌봉사

과감한 투자·지역경제 기여 대주건설 추락 아쉬움

구조조정에 기업가 정신 위축되선 곤란
수만명 고용창출...건설 활황 불지피야

MB정부 복수에 단행된 건설업 구조조정은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부실시공 방지, 기형적으로 비대해진 건설시장의 정화를 위해선 불가피한 조치였지만 해당 업체들로서는 사형선고나 다름없었다. 이른바 '살생부'에 오른 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고 결국 퇴출 대상으로 발표된 기업들은 "왜 우리만..."이라며 극렬히 반발했다.

인위적 구조조정이 또 벌어진다면 제조업 기반이 취약한 호남경제는 회생 불능이 될지도 모른다"고 입을 모은다. 물론 당시같은 영성한 재무구조, 무분별한 상호지급보증, 분지마 PF, 수요를 고려치 않는 공급경쟁같은 악습들이 현저히 개선됐고, 금융권도 건설업에 못지않은 혹독한 구조조정을 거친 만큼 당분간 또다른 인위적 구조조정이 이뤄질 소지는 적다.

5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 정부가 의도한 구조조정은 1군업체들을 중심으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성과가 거뒀지만 뒤편을 맞은 지역건설업은 초도화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우려되는 것은 정부주도의 구조조정에 대한 살벌한 기적이 기업들로 하여금 과감한 도전이나 기업가 정신을 억누르고 지나치게 '안정성'만을 도모케 하는 부작용을 배태시켰다는 점이다.

광주 전남 건설업계에선 당시를 '쓰나미'에 비유하면서 "만약 이같은

정부가 건설·부동산경기의 침체를

타개하기 위해 강남 3구에 대해 투기지역 지정을 해제하는 이른바 '5.10조치'를 내놓아도 오히려 부동산 거래가 감소한 서울의 예도 마찬가지다.

광주·전남지역에선 지난 2년간 미분양 아파트가 감소하고 신규 아파트 건설이 이어지고는 있지만 건설업체들이 건설경기가 살아나고 있다고 판단하기엔 그 온도가 너무 미지근하다. 건설사들이 주도하는 제대로 된 건설시장의 창출은 이전 번 옛날의 일일 뿐이다.

금속건설에 이어 호남지역 건설업계 2위를 기록했던 대주건설의 추락은 지역건설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경우다.

관공사에 의존하지 않고 철저히 민간부문에만 주력했던 대주건설은 2004년~2008년까지 '피오레'라는 아파트 브랜드로 수도권 전국 54개 사업장에서 수만세대의 아파트를 건설했다.

직원만 5200명, 1500여개 협력업체를 포함하면 2만4000명의 고용을 유지하고 있었고 활발한 성장세에 힘

입어 보편적 빅5로 꼽히는 대한화재를 인수하는 기업을 토했다. 무려 2조8000억원을 투입해 해남에 대한조선을 건설한것을 비롯 15개 계열사를 거느린 거대기업군으로 발돋움했다.

그러나 모기업인 대주건설이 2007년부터 몰아닥친 건설업 불황의 늪에서 서서히 빠져든데다 참여정부 후반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받고 오너인 허재호 회장이 사법처리됨으로써 추락은 겹잡을 수 없었다.

대주그룹은 2010년 건설 조선 구조조정으로 은행권 퇴출이 확정된 후로 건설부문 사업부지를 속속 매각하고 대한화재까지 시장에 던지면서 1조원의 유동성을 확보해 자활에 매진했다.

동두천 골프장과 동양화재도 매각했다. 금융기관 부채에 대해서는 상환기일 연장을 받기위해 동분서주했고 아파트현장 매각대금이 들어오는 즉속 협력업체 대금결제가 최우선이었다.

2007년 11월 세무조사결과 허회장이 탈세혐의로 수사를 받게됐을 때

광주상공회의소와 광주·전남 경총등을 비롯한 각계인사들이 연명해 제출한 탄원서에도 "대주그룹이 건설·조선·금융·레저 등 사업을 통해 지역의 경제발전과 지역주민의 생활수준향상에 지대한 공헌을 해왔으며 대규모의 투자로 조성한 대한조선의 경우 지역산업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전남건설협회 광주시지회도 "건설경기 침체로 회원사 대부분이 일감조차 찾기도 어려운 시점에서 대주건설과 같은 대형업체의 부도는 도급공사를 담당하는 회원사들에게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대주건설의 도산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면하게 해줄 것"을 호소했다.

전남 전문건설협회 한상원 전 회장은 당시를 회상하며 "자산을 매각해가면서 3300억원을 협력업체에 결제한 것은 이례적이었다"며 "지역건설시장에 안주하지 않고 전국을 무대로 뛰는 기업가정신이 현재의 건설업계에 너무 절실하다"고 말했다.

(경재부)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서국환)은 지난 2일 1사1촌 자매결연마을인 장성 대곡마을을 찾아 농촌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장성 대곡마을은 지난 5월12일 광주지방국세청이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동농상생을 모색하기 위해 자매결연을 체결한 1사 1촌 마을이다.

이날 행사에는 광주지방국세청 직원과 가족 70여명이 참여해 딸기밭 정리, 눈에 거름주기, 고구마 밭 비닐 작업 등 농촌봉사활동을 가졌다.

광주지방국세청은 자매결연 마을의 딸기와 수박, 호박고구마 등 특산물 직거래와 농촌 일손돕기, 펜션이용 등 농촌사랑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최재호기자 lion@

한은 8월7일~10일 '청소년 경제캠프'

한국은행은 여름 방학철인 8월7일부터 10일까지 전국 고등학교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경제캠프'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경제캠프는 사례 중심의 금융분야 강의, 체험형 경제교육, 경제문제 토론, 산업현장 견학 등으로 이뤄진다. 희망학생은 6월11일부터 13일 사

이에 보호자와 교사가 확인한 참가신청서와 경제에세이, 자기소개서를 이메일에 담아 한은 경제교육팀(bokcamp@bok.or.kr)으로 보내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은 경제교육 홈페이지(http://www.bokeducation.or.kr)를 참조하면 된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국내은행 유럽 차입 축소

자금 회수로 인한 유동성 경색 대비

국내 은행들이 유럽계 은행에서 빌려오는 외화 규모를 크게 줄이면서 차입선을 아시아 지역으로 돌리고 있다.

그리스와 스페인 등 유로존 국가들의 은행 부실이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하면 채권 회수에 나설 개연성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이 때문에 새로운 외화 차입선으로 일본, 홍콩 등이 인기를 끈다.

4월 금융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현재 유럽계 차입금은 549억달러로 국내은행(외국계 은행 지점 포함)의 총 차입금 2042억달러의 27% 수준이다.

유럽계 차입금 비중이 지난해 6월 말 33%라는 점을 고려하면 급감한

상태다. 금융당국의 지도와 은행권의 차입선 다변화 노력으로 꾸준히 줄어든 결과다.

4대 시중은행도 지난해 중반까지 30%선인 유럽계 차입 비중을 올해는 20% 수준으로 떨어뜨려 놓은 상태다. 우리은행은 4월 말 현재 전체 외화차입금에서 유럽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대다. 대부분이 영국과 독일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이다. 금융위기가 심한 프랑스나 피그스(PIGS: 포르투갈·이탈리아·아일랜드·그리스·스페인) 국가에서 차입한 외화는 매우 적다. 유럽발 재정 위기가 악화했을 때 예상되는 갑작스런 자금회수 가능성을 염두에 둔 대비책이다. /연합뉴스

외국인, 5월 국내 주식 3조4천억 팔았다

지난달 그리스 등 유럽위기 악화 탓에 외국인이 국내 증시에서 3조4000억원어치를 순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럽계 자금은 전체 외국인 주식 순매도의 87%를 차지했다.

4월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인은 3조3847억원어치의 국내 주식을 순매도했다.

외국인은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와

채무불이행(디폴트) 우려 등으로 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자 단기성향의 투자은행(IB)을 중심으로 대규모 매도에 나섰다.

유럽계는 4월에 이어 대규모 순매도를 지속하면서 외국인 자금 이탈을 주도했다.

유럽계는 2조9530억원의 순매도를 나타내 전체 외국인 이탈 자금의 대부분을 형성했다. 특히 영국계 자금 1

조7159억원이 빠져나갔다. 특급부르(6106억원)와 프랑크(4599억원)도 매도 규모가 컸다.

미국계 자금의 매도세도 늘어났다. 미국계는 4월 2830억원에 이어 5월에 4457억원을 빼냈다.

외국인 전체 주식 보유규모는 367조8000억원으로 전월말보다 34조3000억원 줄었다. /연합뉴스

“유럽재정위기 대공황 이후 최대 충격”

김석동 금융위원장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유럽재정위기가 대공황 이후 가장 큰 경제적 충격을 미칠 것”이라며 위기대비 태세 강화를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4일 간부회의에서 “2009년 10월 그리스에서 시작된 유럽 재정위기는 유럽 주변국에서 중심국으로, 재정위기에서 은행위기로 확산하고 이제 스페인의 은행위기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특히 스페인은 경제규모가 그리스

의 5배로 세계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의 정도는 예상을 초월할 것이라며 스페인의 은행위기가 촉발되면 그 자체로 충격이 크고 실물위기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어 대단히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유럽 재정위기는 1929년 대공황에 버금가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기록될 수 있다”며 자본주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예고했다.

과거 대공황 이후 자유방임주의가 수정자본주의로 경제운영의 패러다임이 전환된 것처럼 1970년대 이후 자리잡은 신자유주의가 새로운 경제

·금융 패러다임으로 전환되는 움직임이 확실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공고한 시장안정과 질서를 전제로 자원을 추구하고 산업의 발전과 함께 소비자·투자자에 대한 보호, 강화된 사회적 책임 등이 강조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예이다. 김 위원장은 “금융부문에서도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가져올 거대한 변화의 기류를 적극 수용해 대응해야 한다”라며 “시장안정 기반을 공고히 다져 나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건전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for Everland Resort featuring children and the text '아이를 모험하게 하세요!' (Let's make your child adventurous!). It includes the Everland logo, Samsung logo, and contact information for Asia Travel Agency (062-225-3456).